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7년 2월 셋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올해 화장품 가이드라인 8건 제·개정 [뷰티누리]

中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이렇게 대처하라! [코스모닝]

화장품 수출 41억8330만 달러 달성 [코스모닝]

〈해외화장품시장동향〉

호주 사람들은 어디서 화장품을 살까?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법령 정보 24

협회 업무추진현황 26

행사 소식 38

회원사 뉴스 43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올해 화장품 가이드라인 8건 제·개정 ('17.1.23)

- 올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제·개정을 계획하는 화장품 가이드라인은 제정 4건, 개정 4건 등임
- 내용을 보면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신분이 바뀌는 여드름 및 탈모 관련 내용과 동물대체 시험법 등이다. 또 표시·광고 및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화장품 위해평가 관련 내용도 포함됨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537/cat/10>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된다 ('17.1.28)

- 앞으로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의 포장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사용기한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089800001.HTML?input=1195m>

인증·허가 깎간하더니... 상하이 푸둥신항 수입화장품 '허가→등록제' 시범전환 ('17.1.31)

- 중국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상하이 푸둥신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화장품에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K뷰티' (한국화장품) 수출이 수월해질지에 관심이 쏠림
- 그동안 화장품 위생허가 강화, 무더기 수입불허 등 비관세장벽을 높여온 중국정부의 뜻밖의 규제완화 정책에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3104309960861&outlink=1>

中 화장품 생산허가증 전면 통일화('17.2.1)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품약품감독관총국)은 지난 25일자로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관련 요구에 근거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 사항을 공고했음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새롭게 통일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됨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中-화장품-생산허가증-전면-통일화/>

中 자외선차단지수 보고, 실험실 GCP·GLP 준수 증명서 제출해야('17.2.5)

-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중국이 아닌 국외 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보고서를 발급한 실험실이 실험실 자격인증을 받았다면 자격인증서를, 실험실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실험실이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 (Good Clinical Practice·GCP) 혹은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GLP) 을 엄격히 준수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함
-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발표한 '최초 수입 화장품 심사사항 하위항목: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심사·비준 서비스 지침' (2016년 5월 5일자) 중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SPF, PFA 혹은 PA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서 확인된 것임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中-자외선차단지수-보고-실험실-gcp-glp-준수-증명서-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에 이동희('17.1.3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일자로 바이오생약국장에 이동희(前 기획조정관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훈련에 김진석 前바이오생약국장을 전보 발령했음

-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03173>

식약처, 2017 의약외품 정책설명회('17.2.7)

- 식약처가 2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7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갖음
-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은 △2017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2017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추진현황 및 계획 등임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690/cat/10/page/1>

中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이렇게 대처하라!('17.1.31)

-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대체적으로 인증서류 미비를 포함해 제품 품질보증 기간만료, 인증서와 상품의 불일치 등 모두 9가지 유형으로 나뉘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하 질검총국)의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 143호)을 위시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위생부령 제 3호) △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http://www.kcii.re.kr>)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최근 들어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과 관련,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년간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中-수입화장품-통관거부-이렇게-대처하라/>

[2017 중국 위생허가 전망] 안전·심사 기준 강화...변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17.1.6)

-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중요 이슈 두 가지는 2016년 10월께 중국의 시험검사기관 중금속 검출한계 적용 부적합에 따른 위생허가 발급의 지연과 2017년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전자상거래에서 위생허가의 면제가 2017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는 것임
- 화장품의 검사는 위생허가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검사에 앞서 제품을 이루는 각 원료가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로 구성되어야 하고, 각 원료의 기능에 따라 원료의 사용 제한 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함량 내에서 사용해야 함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337/cat/10/pid/36/page/1>

제도 선진화·수출경쟁력 강화에 회세 집중 ('17.2.8)

-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http://www.kcia.or.kr>)의 올해 사업은 크게 △ 제도 선진화와 합리화에 대한 연구 △ 소비자 보호 △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효율성의 증대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새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5천860만원 늘어난 총 23억1천37만원으로 확정됨
- 화장품협회는 지난 8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사파이어볼룸에서 손문기 식약처장·김덕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등 관련

부처장과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 승인, 2017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심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 앞서 열린 올해 제 1차 이사회에서 협회 이명규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의안을 의결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제도-선진화-수출경쟁력-강화에-회세-집중/>

한·中 외교불화가 최대 우려사항('17.1.26)

- 올해 화장품 산업의 최대 우려사항은 중국과의 외교불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한중 노선 중 일부 전세기에 대한 허가 금지와 크루즈선 운항 신청 철회 등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반기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렇지만 이 같은 중국 여행객의 입국 성장률의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자 동시에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며 또 지난 11일 발표됐던 중국 정부의 수출 화장품의 반송조치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의 확대 해석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됐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한·中-외교불화가-최대-우려사항/>

트럼프 TPP 탈퇴 “美 노동자 위한 위대한 일”...‘보호무역’ 행보 본격화('17.1.2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PP 탈퇴를 위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하며 “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 관련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70124/82562367/2#csidx0b540cf592deae19055ccdb5f9e3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 R&D 지원 이 어간다('17.1.2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2017년 글로벌화장품신소재 및 신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에 5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 화장품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화장품 산업을 내수중심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532/cat/10/page/15>

화장품 수출 41억8330만 달러 달성 ('17.1.31)

- 차이나 리스크를 포함한 많은 악재와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화장품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3.8% 성장한 41억8천330만 달러(한화 약 4조8천819억 원)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음
- 같은 기간 수입실적은 2015년보다 2.6% 늘어난 14억3천315만 달러(한화 약 1조6천725억 원)를 기록, 27억5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화장품-수출-41억8330만-달러-달성/>

[면세점 大해부①]K뷰티 열풍...면세점 매출 절반이 화장품 ('17.1.28)

- 지난해 국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2016 면세점 품목별 매출 상위 10 리스트'를 보면 우리나라 면세점 화장품은 6조2869억원 어치나 팔렸으며, 이는 면세점 전체매출 12조 2757억원의 51.2% 수준임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2017012614075638603>

수출입분석 MTI 체계에 화장품 포함 ('17.2.2)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을 2017년 1월부터 개정해 오는 2월 1일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 수출입통계 품목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HS 코드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무역통계 분석 활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 및 경제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MTI 기준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를 최초 작성해 2001년 대폭 개편 후, 2008년 IT 산업 품목분류체계 조정 등, 신규 물품에 대한 미세 조정에 이어 15년만에 대대적 개편됐음

-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203205>

화장품과 1조원, 더 이상 꿈의 숫자 아니다 ('17.2.2)

- 국내 주요 화장품기업들의 2016년 매출이 하나둘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3~4년간 적지 않게 요동친 화장품시장에 더욱 놀라운 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올해 '차이나 리스크'가 국내 산업계 전반의 화두로 떠오른 와중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639/cat/10/page/1>

화장품업계, 中 현지화·수출시장 다변화 생존전략 새로 짚다('17.2.6)

- 중국의 한국 화장품기업에 대한 '보복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중국 현지화 전략과 수출지역 다변화 등 기업상황에 맞는 생존전략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 최근 위생허가 지연, 수입 규제 등 현지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다양한 리스크 최소화화 기회 확보에 나섰다

- 관련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170205134316773>

역직구, 주요 수출 채널로 성장('17.1.31)

-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국내 화장품, 의류 구매가 급증하고 올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의 인기로 한류 열풍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고 미국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전했다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역직구-주요-수출-채널로-성장/>

中 관광객, 韓 화장품 모바일 쇼핑 '하드캐리'...1조원 돌파('17.2.10)

- 우리나라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전년대비 82.0% 증가한 2조2824억5200만원임

- 관련링크:

<http://news1.kr/articles/?2902953>

화장품 온라인채널, 5조원 넘어섰다!('17.2.6)

-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 2014년 2조 6천690억원에서 2015년 3조 5천195억원, 지난해 5조 1천626억원을 나타내며 급격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음
- 화장품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지난 2014년 1조 375억원에서 2015년 1조 9천33억원, 지난해 3조 2천562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화장품-온라인-거래액-5조-1626억원/>

화장품 해외직접판매 1조 6000억 돌파 ...128% 성장('17.2.6)

- 지난해 화장품 해외 직접판매액은 지난 2015년의 7천164억원보다 무려 128.3% 상승한 1조6천35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화장품 해외 직접구매액은 지난해 1천3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6% 상승함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2016-화장품-해외직접판매-1조-6358억원/>

중국서 한국산 화장품 가격 평균 40% 하락 ...추가 감소 전망('17.2.2)

- 오늘(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텐진(天津) 출입경검사검역국이 지난해 텐진항을 통해 수입된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을 조사해보니 평균 40% 인하됨
- 지난해 텐진항에 들어온 한국산 화장품은 총 2천200t, 2천300만달러(한화 265억원) 어치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와 69% 감소했으며, 이 정도 물량은 2013년 수준에 불과함

- 관련링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131747

홈쇼핑 화장품 대박 조건 '입소문' 입증('17.1.21)

- 2016년 홈쇼핑 최대 히트상품은 카버코리아 'A.H.C 리얼 아이크림'이었음
- 본지가 CJ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국내 5대 TV홈쇼핑 이미용부문 히트상품 분석 결과이고, 주문수량 기준 분석이며, 상품명에는 단일제품 또는 상품군이 모두 포함돼 있음

- 관련링크: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21842&flag=h

◦ 국내외 정보

◆ 중국 CFDA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2017년 1월 2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기업은《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및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 본 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fda.gov.cn/WS01/CL1870/16925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2015년 12월 15일 CFDA에서 발표한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붙임1.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 (국문)
- 2) 붙임2.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원문)
- 3) 붙임3.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국문)
- 4) 붙임4.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원문)
- 5) 붙임5. 화장품생산허가증(양식)(원문)
- 6) 붙임6. 화장품생산허가업무규범(원문)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방안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cii.re.kr/Document/News/NEWS_20V.asp?MenuCode=01&SN=4824&WRITE_DATE=2017-01-31

1. 인증서류 미비
2. 제품 품질보증 기간 만료
3.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4.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5. 상품 오염
6. 라벨 불합격
7.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8. 배합금지 물질 검출
9. 불소 함량의 국가 표준 요구 불일치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위생허가 시 자외선차단제 검사에 대한 외국검사기관 성적서 인정 관련

-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자료 관련 부분 국문 번역본입니다.
- 2016년 5월 5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발표한 「최초 수입 화장품 심사사항 하위항목: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심사 및 비준 서비스 지침」에서는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SPF, PFA 혹은 PA지수)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발췌한 국문 번역본을 유첨 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의 중국어 전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1770/15206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붙임1.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자료 관련 (국문)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상해FDA 발표, 상해시 푸둥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7년 제4호)

2017년 2월 7일 중국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상해FDA)에서는 상해시 푸둥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7년 제4호) 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고에는 상해시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웹사이트 주소, 사용자명 등록 방법, 서면자료 접수지 주소, 사무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

(<http://www.shfda.gov.cn/gb/node2/yjj/xxgk/zfxxgk/zxxxgk/hzp/u1ai51418.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상해시 푸둥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7년 제4호) (국문)

2) 붙임2. 상해시 푸둥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7년 제4호) (원문)

3) 붙임3.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사무 지침(국문)

4) 붙임4.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사무 지침(원문)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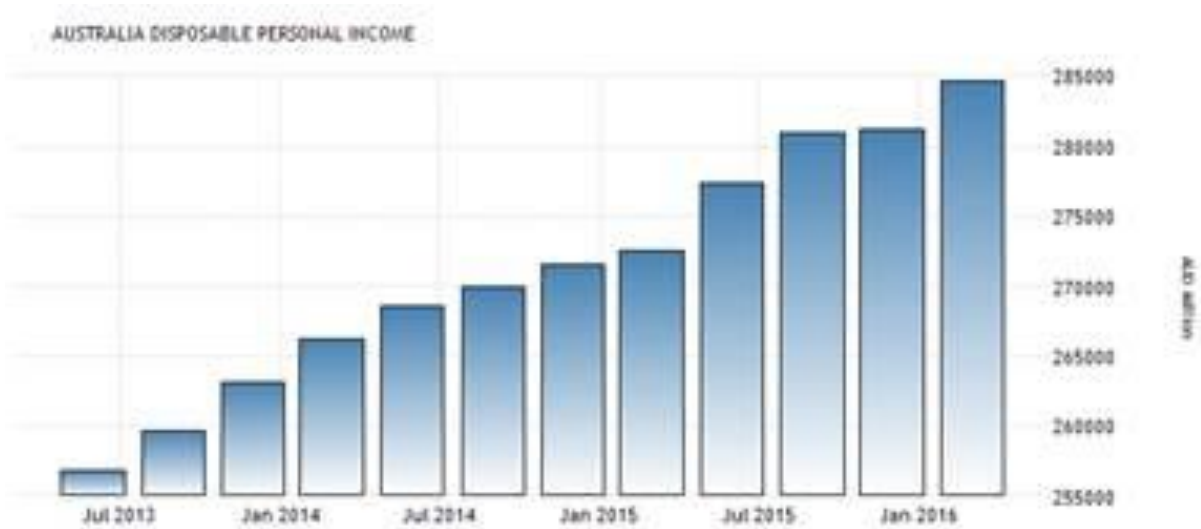
호주 사람들은 어디서 화장품을 살까?

- 백화점, 전문매장보다 슈퍼마켓, 약국 판매 대세 -
-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규모에 따른 전략 세워야 -
- 인증 절차는 잠재 바이어와의 원활한 협업 필요 -

□ 시장규모 및 소비동향

- 2015/16년 호주 화장품 소매시장 규모는 약 37억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연 3% 성장
 -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화장품, 향수, 비누와 같은 개인용품에 꾸준한 수요가 발생함.
 - 유기농, 친환경 화장품에 관심이 높아져 해당 제품군이 크게 성장함.
- 유통채널 간, 브랜드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향후 5년간 성장률은 연 1.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슈퍼마켓, 할인매장, 약국 체인점들이 화장품 판매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기존 판매 채널인 백화점, 전문매장을 위협 중
 -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온라인 전문 매장들도 호황 중
 - 2014년 말, 호주시장에 진입한 Sephora 매장은 저렴한 가격, 풍부한 물량, 셀프 서비스 형태의 매장 디자인을 내세워 2020년 시장점유율 10%를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2013~2016년 호주 개인 가처분소득 수준 추이



자료원: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수입시장 동향

○ 수입시장의 꾸준한 성장, 견고한 미국산 브랜드 충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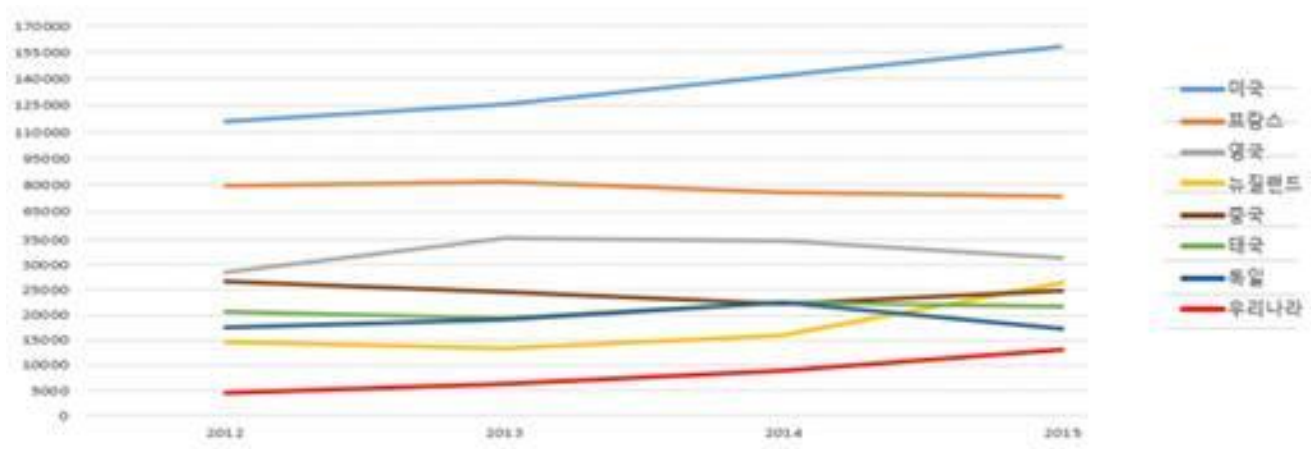
- 한국산 화장품이 가장 많이 진입해 있는 호주의 스킨케어 화장품(HS Code 330499) 수입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도 4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시장의 최대 대호주 수출국은 미국과 프랑스 두 국가로, 수입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수출액은 2015년도 프랑스 수출액이 약 2.8% 감소한 것에 반해 약 11% 증가함. 호주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브랜드(Maybelline, L'Oréal, Neutrogena 등)가 가장 익숙하며 브랜드 충성심이 견고함.

○ 아시아 국가들의 호주 수출 상승. 우리나라는 8위

- 2015년 해당 시장에서 뉴질랜드, 대한민국,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66%, 46%, 12% 정도 증가했음. 이와는 상반되게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수출액은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함. 따라서 유럽산 제품 위주였던 이 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현지 수출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2~2015년 호주 스킨케어 화장품 수입시장 국가별 수출규모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유기농 화장품은 여전히 'made in Australia' 강세
 - 원료 및 제조공정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유기농 화장품은 여전히 호주산이 강세이며, 대표적인 브랜드는 QV, Trilogy, Sukin, Jurlique, Aesop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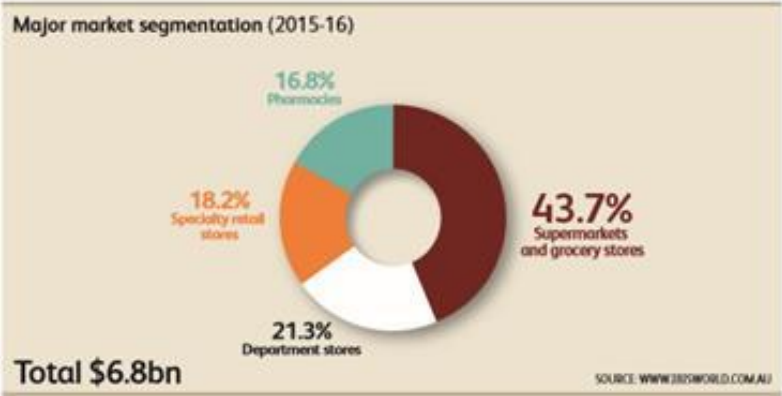


□ 유통채널별 시장 점유율

- 슈퍼마켓, 약국의 화장품 판매 증가. 백화점 및 전문매장은 회복 시도

- 슈퍼마켓 및 할인매장이 화장품 도매시장의 가장 큰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백화점 (21.3%), 전문매장(18.2%), 약국(16.8%) 순서로 유통채널이 나뉨. 슈퍼마켓 및 할인마트는 매장 내 화장품 진열대를 늘려가는 추세이며, 이에 맞서 대형 백화점과 전문매장은 중저가 브랜드로 취급품목을 확대하고 쿠폰, 바우처와 같은 특별 프로모션 등을 확대하고 있음.

2015~2016년 호주 화장품 및 개인용품 유통채널별 도매시장 점유율



자료원: IBIS World Report

□ 슈퍼마켓, 상점형 약국

- 성인 여성 4명 중 1명이 슈퍼마켓에서 화장품 구입
 - 2014년 Roy Morgan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16세 이상 여성의 25%가 슈퍼마켓에서化妆품을 구입한다고 함.
 - 실용을 중시하는 호주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Coles, Woolworths와 같은 슈퍼마켓의 화장품 진열 비중이 늘고 있음.

슈퍼마켓의 화장품 진열대



○ 상점형 약국(Drug store, chemist)의 화장품 판매 급증

- API사가 보유한 Priceline, Soul Pattison Chemist 약국 체인점이 화장품 및 개인용품 판매의 가장 큰 8.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 2012년부터 Priceline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에도 뛰어들었으며, 첫 해 160만 호주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220만 호주달러 매출을 기록함.



□ 대형 백화점

○ 대형 백화점은 취급품목 확대, 특별 프로모션으로 회복 시도

- 호주의 대형 백화점 David Jones와 Myer가 취급하는 고급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고객의 수요처가 슈퍼마켓, 약국, 온라인 매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임.
- 대형 백화점은 취급품목 확대, 선물 및 상품권 증정,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매출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화장품 전문매장

○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장마다 각각의 특색 강조

- 시장 점유율 순으로 The Body Shop, Napoleon, Jurlique, Mecca 매장이 가장 크며, 2014년 말 프랑스 국적의 글로벌 브랜드 Sephora가 진입해 향후 5년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바, Sephora에서는 2016년에 'Next Stop Korea'라는 슬로건으로 마케팅했으며 Dr. Jart 브랜드 등을 특별 프로모션함.



□ 온라인 판매

○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판매채널

- 오프라인 판매가 전혀 없이 온라인 판매만 진행하는 e-retailer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급망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온라인 몰의 강점은 병행수입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배송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보다 폭넓은 브랜드를 취급하는 데 있음.
- 호주의 대표적인 화장품 전문 온라인 매장은 Adore Beauty, Crush Cosmetics, RY, Skincare Store가 있음.

□ 한국 브랜드 진출 현황

○ 아시안 마켓 중심으로 성장. 단독매장은 The Face Shop, Tonymoly가 유일

- 2013년 950만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산 화장품의 대호주 수출은 2015년 17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77% 증가함.
- 제품의 다양성과 높은 완성도로 현지 유통업체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고객층인 아시안 인구, 특히 중국인 인구의 증가도 주요 변수로 작용함.
- 호주에 단독 매장을 보유한 기업은 The Face Shop, Tonymoly가 유일하며 이외에 Skinfood, Etude House, Innisfree, Laneige, Missha 등의 인기 제품들은 현지 유통업체, 수입 화장품 전문매장, 온라인 매장 등 다양한 루트로 판매되고 있음.

□ 향후 진출전략

○ 글로벌 브랜드: 대형 유통망(백화점, 전문매장) 1차 벤더 접촉 또는 단독매장 설립

- 현재 다양한 경로로 한국산 글로벌 브랜드들(Skinfood, Innisfree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산 제품에 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임. 호주의 대형 Retailer들은 직접수입보다 호주 현지의 판매 에이전시/유통업체를 통한 조달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법인 및 단독매장 설립 이전이라면 이와 같은 1차 벤더를 통해 백화점, 전문매장에 진출해 브랜딩을 시작할 것을 추천함.

- 호주 내 단독 매장은 The Face Shop, Tonymoly가 유일하므로, 도심지역에 단독매장을 설립해 공격적인 마케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매장 콘셉트나 홍보 모델을 한국 및 동남아 지역 매장의 것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 수요에 맞게 변화를 줄 것을 추천함. 예를 들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쪽에 치우친 매장 콘셉트나 제품보다 모델이 중심이 된 홍보물은 지양해야 함.

서호주 Perth 지역의 The Face shop 매장



○ 중견 브랜드: 전문매장 및 온라인 매장 접촉 혹은 OEM 수출

- 호주의 소비자들은 미국 및 유럽지역의 유행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으므로, 해당 시장에 수출 이력이 있는 중견 브랜드라면 이 점을 충분히 어필해 화장품 전문매장에 접촉해볼 것을 추천함. 온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폭 넓은 제품군을 취급하는 바, 적극적으로 접촉할 것을 추천함.

- * 2016년 7월 무역사절단 일정으로 시드니에 방문한 국내 S사는 자가가 보유한 제품군이 미국, 유럽 및 동남아 지역에 수출된 이력을 어필해, 호주 대형 백화점 1차 벤더인 C사와 전문 매장인 Mecca, Sephora 담당자와 모두 상담을 진행함.
- OEM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현지 브랜드 이름으로 OEM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호주 기업의 마케팅 및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꾸준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임.

해외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made in Korea 제품
(왼쪽은 Sephora 마스크팩, 오른쪽은 슈퍼마켓 및 약국 체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Formula 10.0.6'의 피부관리 제품)



- 중소 브랜드: 아시안 마켓을 통한 시장성 테스트 및 현지화 병행
- 아시안 마켓에 주로 공급하는 중견 수입상들은 시장성만 입증되면 새로운 브랜드라도 비교적 신속한 절차로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하기 때문에, 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마케팅하길 원한다면 전문성 있는 영문 회사 홈페이지, 영문 패키징, 영문 제품 소개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영문 제품 소개서는 모델이나 콘셉트 중심이 아닌 제품의 원료와 기능 중심으로 구성돼야 함.

□ 관련기업 인터뷰

- 대양주 굴지의 온라인 리테일러 Mysale Group의 화장품 구매 담당자에게 해외 직접수출 기준 상위 50개의 한국산 브랜드 리스트를 송부하고, 어떠한 브랜드에 관심을 보였는지 확인

- 과일 등 천연재료를 기반으로 한 마스크팩 제품에 관심을 보임.
- 달팽이 추출물, 동/식물성 기름 등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원료가 포함된 제품에 관심을 보였으며, 동시에 수입규제 및 인증규제를 철저히 확인함.
- 전반적으로 한국산 화장품 중 색조화장보다는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임.
- 제품의 디자인이 단순하고 깨끗한 패키징을 선호했으며, 회사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정보를 난잡하게 배열한 회사보다 페이지별로 브랜드별 콘셉트를 잘 정리한 쪽에 호감을 보임.
- 강한 향기가 나는 제품보다 은은한 향기가 나는 제품을 선호함.
- 필요 이상의 디자인이나 이색적인 패키징보다, 실용적이고 제품의 용도가 익숙한 제품을 선호함.
- 대표 이메일이 gmail, hotmail이 아닌 상호명을 이메일 도메인으로 갖춘 기업을 확연히 신뢰함.

□ 화장품 인증(일반 화장품, 의료용 화장품)

○ 일반 화장품: NICNAS 성분 확인

- 호주에서 일반化妆품을 제조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호주 기업은 정부기관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에 회원기업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제조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모든 원료들이 NICNAS에서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료 리스트(AICS,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s Substances)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만약 호주 기업이 제조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원료 중 NICNAS의 원료 리스트(AICS)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가 포함돼 있다면, NICNAS를 통해 원료의 성분 테스트를 받아야 함.
- 제조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모든 원료가 이미 NICNAS의 원료 리스트(AICS)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NICNAS를 통한 원료 확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호주 내 수입업체가 진행해야 하므로, 호주에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호주 내 수입 희망업체가 NICNAS 원료 확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료의 영문자료 등을 제공해줘야 함.

관련기관	NICNAS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홈페이지	www.nicnas.gov.au
전화번호	+61 2 8577 8800
주소	GPO Box 58 Sydney NSW 2000

○ 의료용 화장품: TGA 인증

- 화장품 중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는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청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질병, 결함, 상처를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기능
-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
- 위의 정의에 의하면,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선크림(Sunscreen), 주름개선,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은 TGA 인증 필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현지 바이어와 인증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의료용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예는 선크림(Sunscreen)이며, 아래와 같은 범위에 포함되는 선크림 혹은 선크림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TGA 승인을 받아야 함.
- 주된 기능이 선크림인 제품: SPF4 이상의 모든 선크림 제품
- 주된 기능이 선크림이 아니나 선크림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SPF15를 초과하는 제품
- 아래와 같은 제품들은 선크림의 기능을 포함하더라도 일반 화장품(Cosmetics)으로 분류돼 NICNAS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의약품(Therapeutic goods)을 관장하는 TGA와는 무관함.
- 보습크림(Moisturiser) 중 선크림의 기능이 SPF15 이하인 제품
- 태닝제품 중 SPF가 15 이하인 제품
- 메이크업(파운데이션 등) 제품(SPF 무관)
- 립스틱 혹은 립밤(SPF 무관)

인증기관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s)
홈페이지	www.tga.gov.au
전화번호	+61 1800 020 653 / +61 2 6232 8605
주소	info@tga.gov.au

□ 시사점

-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유통채널 간,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안정적인 국민소득, 개인용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
 - 슈퍼마켓, 약국의 화장품 판매 증가가 기존 판매채널인 백화점, 전문매장을 위협하고 있음.
 - 더 폭넓은 브랜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들도 호황
-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규모별 맞춤형 전략 필요
 - 글로벌 브랜드: 대형 유통망 1차 벤더 접촉 혹은 단독매장 설립
 - 중견 브랜드: 전문매장 및 온라인 매장 접촉 혹은 OEM 수출
 - 중소 브랜드: 아시안 마켓을 통한 시장성 테스트 및 현지화 병행
- 일반 화장품, 의료용 화장품 인증 - 잠재바이어와의 원활한 협업 필요
 - 일반화장품은 NICNAS 성분 확인이 필요하며, 잠재 바이어에게 영문 원료정보 제공 필요
 - 기능성 화장품은(선크림, 기능성 제품) TGA 제품인증 필요

자료원: 매장 방문 조사, 구매자 전화 조사,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Global Trade Atlas, Ibis world report,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전화 조사,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s) 전화 조사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대통령령 제27827호, 2017.1.31.)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化妆품을 수입·유통·판매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함.
 -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2017년 2월 4일부터.
-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관련 협조 요청

-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에 의하여 2017.02.0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
- 식약처에서 해당 사항의 준수 여부를 추후 점검할 계획이 있으며, 업계에서는 법령의 미인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 12. 31까지 지정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현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붙임의 기타시험이 동물대체시험법에 해당함)

식약처, 화장품포장의 기재·표시 변경사항에 관한 협조 요청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따라 2017.02.04일부터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표시 사항이 변경됨.

- 기존: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또는 ‘견본품’이나 비매품)

- 변경: 기존 기재사항 이외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기재·표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화장품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제조판매업자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제조판매한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2017.2.28(토)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 ◆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보고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 실적보고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 가기

※ 실적보고 자료 작성전에 ‘실적보고 관련 공지’에 게시된 자료(실적보고 작성 요령 등)를 충분히 숙지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 [1~6월 수집정보 : 7월 중 보고, 7~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중 보고]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 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 안내

-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은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화장품 원료목록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를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 보고토록 하여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원료목록 보고시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만 보고토록 인터넷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 따라서, 2017년부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료목록 보고시 원료명이 표준화된 명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표준화 원료 명칭을 보내드리오니 사전에 점검후 보고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된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에서는 원료 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로 하되, 다만 다음 성분은 제외하고 제출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않은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나. 배합금지성분 화장품 법령 준수 확인

다.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용기등의 전성분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 원료목록 보고시, 첨부파일의 표준명 1 또는 표준명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하실 수 없습니다.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개최(2차)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1월 23일 제1차로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1차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생산실적 보고 담당자께서는 2월 17일(금)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 2. 20(월), 10:00 ~ 12:00

나.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약도)

다. 참석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라. 참석인원 : 400명(선착순)

붙임 : 약도 1부. 끝.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16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보고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mail,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설명회 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교육 일정

◆ 우리협회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7. 2. 21 (화) , 10:00-17:30

2017. 3. 14 (화) , 10:00-17:30

나. 장 소 : 서울 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

다. 대 상 : 화장품법제5조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

라. 교육 내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이해,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
관리,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등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협회는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대표자교육)' 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7. 3. 30 (목) , 10:00-17:00

나. 장 소 : 대한화장품협회 9층 회의실

다. 대 상 :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라. 교육 내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이해,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
관리,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등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 [1~6월 수집정보 : 7월 중 보고, 7~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중 보고]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 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전시회 일정 안내

◆ 2017년도 우리협회에서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해외 화장품 전시회일정입니다.

전시회명	개최일자	국가(도시)	지원기관	모집
인코스메틱유럽2017(in-cosmetics Global 2017)	2017.04.04~04.06	영국(런던)	중소기업청	모집완료
중국상해화장품미용전시회	2017.05.23~05.25	중국(상해)	중소기업청	모집완료
중국광주화장품미용전시회(추계)	2017.09.04~09.06	중국(광주)	중소기업청	5월중
홍콩화장품미용전시회(cosmoprof Asia 2017)	2017.11.15~11.17	홍콩	KOTRA	4월중

*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문의 : 임종근 부장(Tel 02-785-3898, e-mail : rootim@kcia.or.kr)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코스메틱스글로벌 2017 한국관 부스장치 시공사 입찰공고해외전시회 일정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인코스메틱스글로벌 2017 에 한국관으로 참가 합니다
이에 한국관 참가에 따른 한국관 부스디자인 장치관련 시공사를 붙임과 같이 선정할 계획 이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박람회개요

- 전시명 : 인코스메틱스글로벌 2017
- 전시기간: 2017. 4. 4 ~ 4. 6(3일간)
- 전시장소 : 영국 런던 Excel London

나. 제안사항

- 한국관 규모 : 113㎡ (홍보부스 9㎡ 포함)
- 제안가격 : 1㎡ = US\$375 (디자인 및 견적서)
- 마감일시 : 2017년 2월 17일(금) 12:00까지
- 제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임종근 부장
(Tel 02-785-3898, Fax 02-782-6659)
- 제출방법 : 우편 접수

붙임 : 인코스메틱스글로벌 2017 장치 입찰공고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 현황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은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되어 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은 물론 국민에게 우리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준법정신 함양과 제조판매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2,82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 한편, 우리 협회는 1월 24일(화)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2017년도 첫번째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제조판매관리자가 원하는 시기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달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17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교육의 전체일정은 2월 초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최 예정인 교육에 대해서 교육시기에 맞추어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01.24.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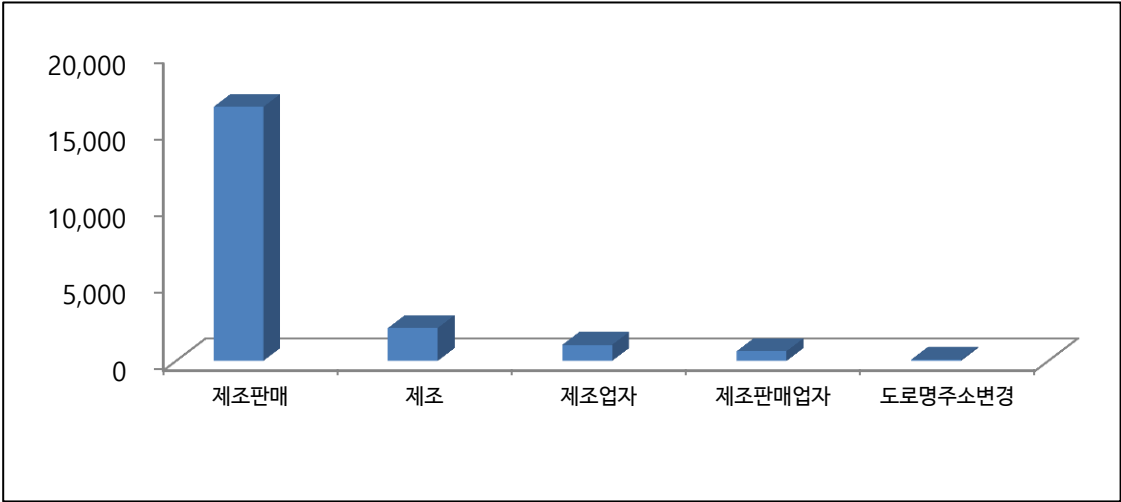
◦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

-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에 총 2회 개최되었으며, 광고자문신청 건수는 총 78건이었다. (적합 : 6건, 조건부 적합 : 43건, 부적합 : 29건)
- 광고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암, 면역증강, 항피로, 노화방지 효과로 알려진 동충하초 추출물 함유
 - 역사 속 동충하초 이야기 ... 95세까지 장수한 등소평이 상시 복용한 동충하초!/중국육상선수팀이 세계기록을 속출하였을 때 그 이유를 묻자 '동충하초 드링크를 매일 마셔요'라고 인터뷰함
 - 사용대상 : 펌은 필수! 험한 정수리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는게 불편하신 분/가발을 착용하시는 분
 - 성형외과 전문의 Dr.Lee(○○원장)와 ○○이...오랜 연구 끝에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
 - 세포 사이사이까지 유효성분을 전달하여 ...
 -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은 피부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의 중성화에 매우 효과적
 - ○○○은 원주민들이 몸에 자극을 받았을 때 바르던 귀한 풀로 아주 오래 전부터 민간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

◦ 2016년 화장품관련 증명서 발급건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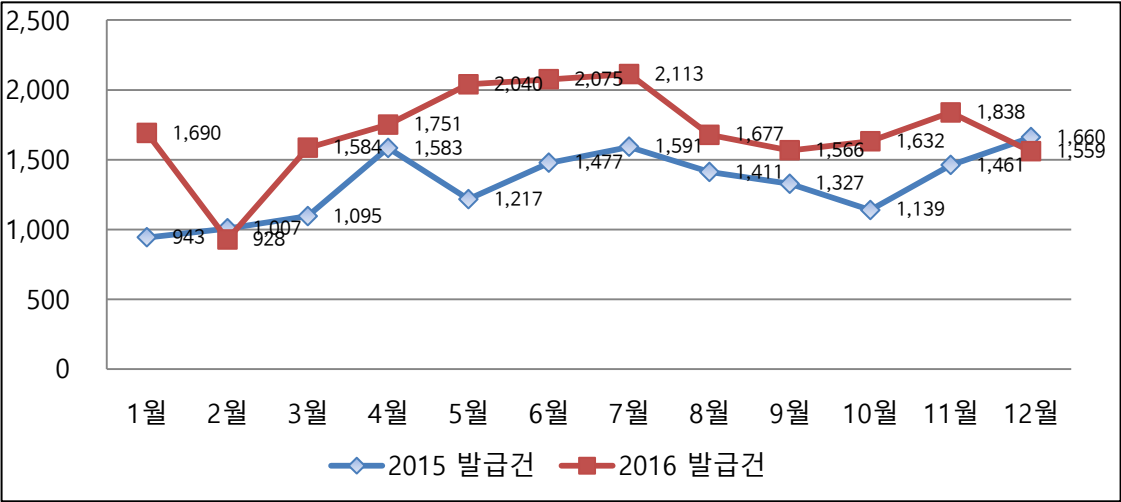
◆ 〈 2016년 증명서별 발급건수 〉

- 2016년 총 발급건수는 20,453건이며 제조판매증명 80.8%(16,533건), 제조증명 10.4%(2,145건), 제조업자 5.1%(1,049건), 제조판매업자 3.1%(639건), 도로명주소 변경 0.4%(87건) 로 발급되었다.



◆ 〈 건수별 비교 〉

- 2015년 발급건수는 15,911건이었으나, 2016년 발급건수는 20,453건으로 전년보다 28.5% 증가하였다.



※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jacklbs@kci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 ◆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중국소재	베이징신금정기술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재지시대
	베이징화하미풍 화장품기술센터
	북경매리스
	알란
국내 소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해외인증경영센터
	호경물산주식회사
	SMC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붙임2.「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 (번역판) 안내

우리 협회는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 (번역판)』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중국 수출 시 필요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사에 한해 한권을 무료(택배비는 착불 부담)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책자를 받아보시길 원하는 회사는 '17년 02월 24일(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후 03월 06일(월)부터 일괄배송 (택배 착불) 될 예정입니다.

본 책자의 전자파일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중소화장품기업수출애로센터→해외규정→중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주요내용〉

중국의 화장품 관련 기본법/검사관리/위생행정허가/표시관리/원료관련/통관/기타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대한화장품협회' → '발간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외 화장품판매장(중국)』참가기업 모집 공고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화장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국 충칭과 심양에 화장품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1 안내문 참조)

신청기간은 1.25(수)~2.20(월) 18:00까지이며, 문의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사업팀, 전화: 043-713-8756 / 043-713-8272)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시험법 설명회」개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계의 자가품질검사 능력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2월 21일(화)에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에서는 불임의 양식에 따라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7년 2월 17일(금) 18시까지 이메일(leesm516@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2017.2.21.(화) 13:30 ~ 16:00

나. 장 소: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청주시 오송읍)

다. 대 상: 화장품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 담당자

라. 주요내용:

- (1) 화장품 시험법 교육
- (2) 화장품 시험법 책자 배포
- (3) 시험법 개선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불임: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계획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업무 설명회” 개최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수출회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종 및 분야별 현장 애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수출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첨부파일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시어 아래의 접수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제출 : (e-mail) trade@kbiz.or.kr

(fax) 02-3775-1981

- 문의 : 통상정책실 김형우 과장 (02-2124-3163)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관세 관련 우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 조사의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FTA 협상 진행 및 계획 중인 국가(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분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2. 22(수)까지 eunju89@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관세 분야 우리기업 수출 시 애로사항 양식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주변인프라

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입주
- 생산부터 인증,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통인프라

국토의 중심에, 오송이 있습니다

- KTX 오송역 → 서울 45분**
 - 전국 유일 고속철도 분기역 (경부, 호남)
 - 전국 X축 연결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연계)
-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
 - 2개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서청주IC, 오송IC)
- 청주국제공항**
 - 단지와 20분 거리에 위치
 - 37개 도시에 국제선 운항 중인 충북이 핵심공항
- 평택항**
 - 70km 내에 위치

인적자원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지원

BT

7개 대학, 900여명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IT

13개 대학, 2,200여명

청주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자동차

8개 대학, 800여명

한국교통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가능인력 양성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등 특성화고등학교

안전한 도시

재난재해 없는 첨단업종 최적지

국립완결과학원 평가

지진,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



중양일보

험한 날씨에 가장 안전한 곳은 충북

이제, 지역에 충주에 한해만...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지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연락처 :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4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본부, 4개 센터)



시설명	연면적	부처	역할
신약개발지원센터	22,067㎡	미래창조과학부	신약후보물질 평가 및 공동연구개발 등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10,274㎡	산업통상자원부	제출물 및 시제품 제작지원, 개발 등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5,690㎡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실험동물센터	7,528㎡	보건복지부	동물실험시행 지원, 실험동물 지원 및 관리 등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보건의료 필수 연구지원시설(3개 시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연면적 : 12,301㎡
- 준공일 : 2012.4월
- 역할 : 국가단위 인체자원 총괄

국립의과학지식센터

- 연면적 : 6,669㎡
- 준공일 : 2013.12월
- 역할 : 산중-변종 병원체 진단 및 백신개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 연면적 : 9,900㎡
- 준공일 : 2016.10월
- 역할 : 고품질 줄기세포 수집·보관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라젬헬스앤뷰티

창립 7주년(2010. 2. 9)

피코스텍

창립 11주년(2006.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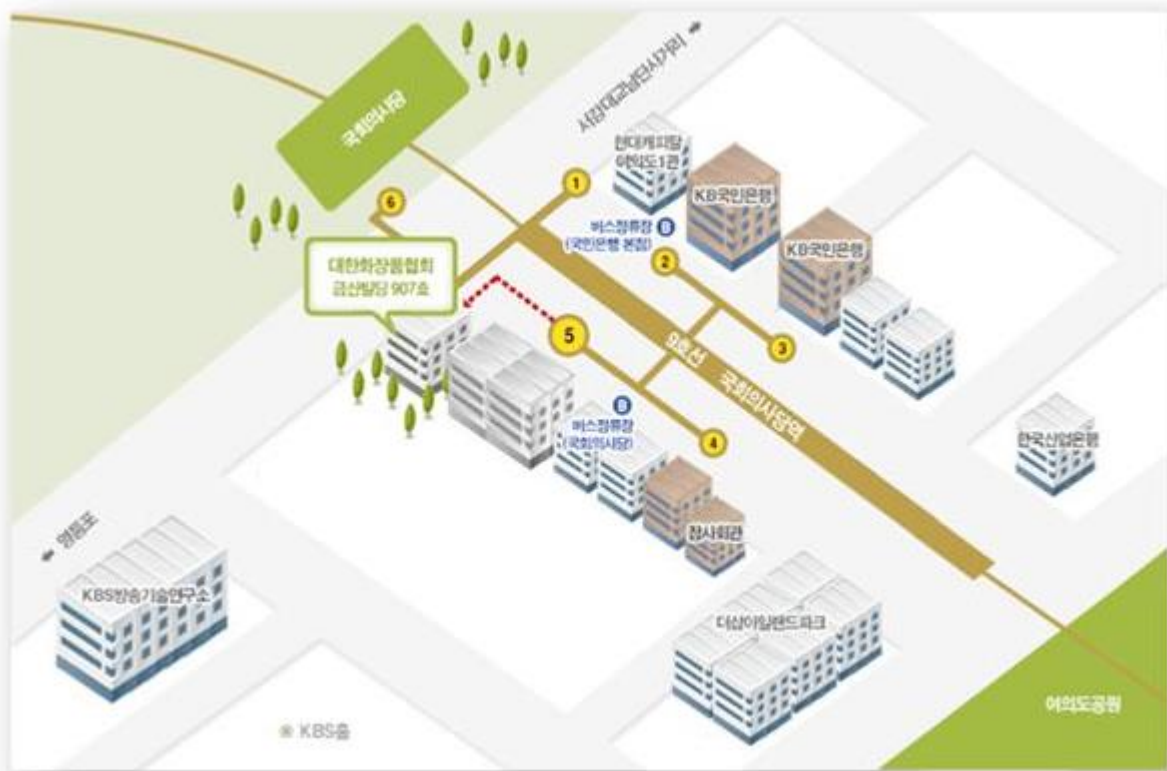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줄간격 180, 글씨 12포인트 기준)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